

■ 르포 - 진도 '신비의 바닷길' 훼손 현장

관광객 달려들어 갯벌 호미·삽질 길 낮아져 20m 구간 끝내 안열려

郡, 내년부터 휴식년제 검토

'기적'은 영원하지 않은 것 같았다. 소중한 '기적'을 헛되이 버린 사람들에, 신은 그 '기적'을 다시 빼앗아가고 있는 듯 보였다. 17일 오후 5시20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의신면 모도리 간 '신비의 바닷길' 현장. 전국 각지의 해외에서 몰려든 32만 명의 인파들이 해변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며 회동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색 연막탄이 하늘을 수놓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면서 '현대판 모세의 기적'이 펼쳐졌다. 풍악 소리가 행사장 주변에 울려 퍼지고, 관광객들도 함성을 내지르기 시작했다.

신들이 훼손의 주범인 줄 모르는 것 같았다. '진남대학교 해양연구소' 측은 그러나 올해로 30회를 맞는 축제 때마다 몰려든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의 발걸음에 해수면이 15~40cm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진도군이 지난 1996년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계 해수욕장~축제장 사이에 ▲길이 1.3km ▲높이 1.5~2m의 호안(護岸)을 쌓고, 700m 떨어진 의신면 초사리에 2천200여 평의 물양장((物揚場·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을 축조한 것도 얹어 야 할 퇴적물의 공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군은 이날 행사장 곳곳에

▲신비의 바닷길=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의신면 모도리까지 1.8km 구간의 바닷길이 폭 80m로 갈라지는 길. 1년에 20여 회 나타나며, 한 번 열리면 1시간 가까이 지속된다. 지난 1975년 주한 프랑스 대사 '피에르 람다'에 의해 전세계에 소개됐다.

안하는 부두)을 축조한 것도 얹어 야 할 퇴적물의 공급을 막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군은 이날 행사장 곳곳에

'문화재 보호' 경고 문구를 설치, 계몽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쳤다. 내년부터는 휴식년제를 도입하거나 관광객 입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람들의 무절제한 욕심과 근시안적 행정 때문에 한국의 '명물'이 잊혀질 운명에 처한 것이다.

'신비의 바닷길'은 자연을 훼손하면 사람들이 고스란히 그 대가를 곱으로 되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한 시간 남짓 보여준 뒤 다시 물속으로 사라져 갔다. 내일 이 바닷길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인가. /진도=박현영·이종행기자 hypark@kwangju.co.kr



매년 100여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발길에 30년간 몸살을 앓아온 진도 '신비의 바닷길'. 올 들어 17일 첫 열린 이 바닷길은 삽·호미 등을 이용한 해산물의 무분별한 채취로 바닷길이 낮아지는 바람에 일부 구간이 30cm가량 물에 잠긴 채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진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정이 지연되면서 브로커와 결탁한 비자 서류 위조 사건이 기승을 부리자 법원이 비자신청 서류 위조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송희호 판사는 17일 100여만원을 주고 위조한 비자발급용 구비 서류를 미 대사관에 제출한 혐의(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31)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5월에 집행

광주 '미국 비자 사기' 기승 법원 "선의 피해 막자" 엄벌

유에 2년을 선고했다. 송판사는 또 최근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위조된 공문서를 미 대사관에 제출한 이모(49)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도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주고 재직

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무원서인 소득증명서를 위조해 비자신청을 한 박모(46)씨를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미국 비자 서류 위조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최근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지연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들을 엄벌에 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한국 검독수리들 남도 창공서 첫 비행

광주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17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이용한 고등비행훈련을 실시했다. '검독수리(Golden Eagle)'로 불리는 T-50이 영산강 일대 평야 위를 날고 있다. T-50은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997년 개발에 착수해 2005년 1호기가 출고됐다. 비행단은 내년까지 T-50 2개 대대(40~50대 규모)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광주 총장로 불 점포 7개 태워

어제 새벽 1억원 피해

17일 새벽 2시58분께 광주시 동구 총장로 4가에서 화재가 발생, 일식집·의상실 등 7개 점포가 불에 타 1억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이 나자 소방차 14대와 소방관·경찰관 60여 명이 출동했으나, 상점

들이 20~50년이 지난 목조건물인데다 일부 무허가 건물이 밀집돼 있어 1시간이 지나서야 불길을 잡았다. 당시 상가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누적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발화지점 등을 조사 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소록고 붕괴' 4명 영장·7명 불구속 방침

경찰 "교량 구조 계산도 잘못"

고흥 '소록고' 붕괴 사고 원인은 동바리(支保工) 부설 시공과 있었지만, 교량에 대한 구조 계산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 경찰은 17일 "교량 상판 무게와 두께·높이 등의 기본적인 구조 계산이 잘못되는 바람에 교량 상판을 떠받쳐야 할 동바리가 그 하중을 견뎌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교량 구조 계산을 담당할 읍대기술사사무소 정모(45)씨·한대건설 설계팀 김모(50)팀장·협력대장은 수성엔지니어링 김모(51)씨·동바리 시공사인 삼원엔탈 유모(35)과장 등 4명을 업무상 과

실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현대건설 안전관리 관계자 송모(41)씨 등 시공사와 하청업체 등에서 안전관리를 맡은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사건 처리 건의서'를 17일 오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 내용과 '사건 처리 건의'를 종합 분석한 뒤 늦어도 19일 안에는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발생한 '소록고' 붕괴사고로 인부 5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오광필기자 kroh@kwangju.co.kr

나원침 (7106) 김종두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우리는 3,636 최대단지!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우리는 3,636 최대단지!
명품신도시의 중심특권을 우리는 3,636 최대단지!

할머니 성폭행 美軍 징역 4년
서울교범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2보병사단 소속 미대령(23)이 병이 항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

이장이 미을 보살금 5,400만원 착복
○강진군 A마을 주민 11가구는 "40대 이장이 마을 토지수용보살금 5천4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주민들은 소장에서 "이장이 지난 2005년 9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석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따른 공익용지 부지권입 손실보상금으로 마을에 지급한 돈을 틀래 착복했다"고 주장.
○"이들은 "당시 돈을 관리하던 이장이 지난 2월 교체되면서 돈의 지급을 요구하자 달아났다"고 설명. /강진=이병철기자 mood@

(주)조이트래블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총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세계 어느 곳을 여행하시더라도 조이트래블과 함께라면 편안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
고객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다년간 축적된 독특한 노하우로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저희 조이트래블은 전문 여행사와의 업무 제휴와 현지 직영사무소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여행문화를 선도하여 고객분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곳을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한 해외여행...
앞으로도 저희 조이트래블은 여행서비스 수준을 더욱 발전시켜 고객 한 분 한 분마다 진한 감동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조이트래블 대표이사 최금환

Best of best! 국내 최저가 일본 규슈 온천 3박4일
279,000
출발일: 6월 3일
숙박: 아마미미 온천 3박4일
날짜 | 장소 | 교통 | 시간 | 일 | 정 | 식 | 사
1박 | 광주 | 전월버스 | 1230 | 광주역 앞 집결(12:30) / 출발 후 부산 이동 | 휴게소 개별식
1박 | 부산 | 카펠리아 | 1800 | 부산 국제 여객선 터미널 도착 후 출국 수속 | 휴게소 개별식
2박 | 후쿠오카 | 전월버스 | 0800 | 부산 출발 / 후쿠오카 호텔 | 호텔: 카펠리아 신내 숙소 (다인실) | 선내식
2박 | 구마모토 | 전 일 | 구마모토 이동 후 후쿠오카 | 호텔: 카펠리아 신내 숙소 (다인실) | 선내식
2박 | 아소 | 전 일 | 일본의 3대성 중 하나인 구마모토성 관광 | 푸사센리 / 세계 최대의 활화산 아소산 관광 | 콘도식
2박 | 구주산 | 전월버스 | 0800 | 가시 및 조식 후 히가시시야 폭포(85M) 관광 | 호텔: 빌라형 콘도 (아마미미) | 콘도식
2박 | 벵 부 | 전 일 | 아생 원숭이들의 천국 다카사키 원숭이 공원 견학 | 콘도식
2박 | 구주산 | 전월버스 | 0600 | 가시 및 조식 후 후쿠오카 이동 | 콘도식
2박 | 후쿠오카 | 전월버스 | 0600 | 가시 및 조식 후 후쿠오카 이동 | 콘도식
2박 | 후쿠오카 | 전월버스 | 0830 | 후쿠오카 오토리 공원 / 일본 정월 관광 | 콘도식
2박 | 카펠리아 | 1130 | 히카타 항 도착 후 출국 수속 | 콘도식
2박 | 부산 | 전월버스 | 1230 | 후쿠오카 출발 / 부산 출발 | 휴게소 개별식
2박 | 부산 | 전월버스 | 1800 | 부산 도착 후 광주로 이동 | 휴게소 개별식
2박 | 광주 | 전월버스 | 2230 | 광주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 휴게소 개별식
전일정 노담! 노음선!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광주 출도착 기준!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가슴 설레이는 여행...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 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소리투어 Soritour
일본
추천상품1: 통나무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4일 299,000
추천상품2: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4일 349,000
추천상품3: 팬스타와 함께하는 오사카/나라/교토 5일 469,000
추천상품4: '동화 속 느낌, 토크쇼와 함께' 하우스텐보스 + 아사팜 4일 449,000
중국
추천상품1(광주 출발): 상해/소주/항주/주가라 KE 4일 399,000
추천상품2(광주 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859,000
추천상품3(광주 출발): 심양/백두산 CZ 4일 579,000
추천상품4(광주 출발): 장사/장가계(원가계) 광주출발전세기 4일 590,000
추천상품5(광주 출발): 장사/장가계(원가계) 광주출발전세기 5일 650,000
추천상품6(광주 출발): 장사/장가계(원가계) 광주출발전세기 4일 650,000
추천상품7(광주 출발): 장사/장가계(원가계) 광주출발전세기 5일 690,000
유럽
추천상품1: 전통풍경 서유럽 6개국 OZ 12일 3,200,000
추천상품2: 풍경상품(1일) 서유럽 6개국 KE 12일 3,100,000
추천상품3: 풍경상품 서유럽 6개국 LH 11일 2,220,000
추천상품4: 풍경상품 오프라우 1일호텔 CX 12일 2,390,000
남태평양
추천상품1: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특급호텔) KE 10일 1,990,000
추천상품2: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특급호텔) OZ 10일 1,890,000
동남아
추천상품1: 베트남/캄보디아(특급/1일) VN 6일 89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5인원 영안보증보험 가입 / 여행객에 가입업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별 가입해의상용 1억원, 국내생활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 있음 (단, 개인적인 집, 선택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최소생활비 15일 이상
상기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바랍니다.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